



GILLETTE가 남기는 것

(다시 길을 나서는 이들의 눈으로 본)

“클리닉은 환자를 치료한다. 돌봄의 공동체는 사람을 지탱한다.”

I. 남는 것

나는 휴게실에 있었다. 오후의 휴식, 담배 한 대, 대화를 위해 환자들에게 열려 있는 곳 — 그리고 우리 보호자들에게도, 우리의 환자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기다리는 동안.

나는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: 사람이 병 속에서 어떻게 연약해지는지를. 흔히 장애를 남기고 빠져나갈 길도 없는 병, 누구의 나이도 가리지 않는 병.

남자 다섯과 여자 하나가 있었고, 모두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. 그들은 내 쪽으로 몸을 돌려 묻기 시작했다. 나이가 몇인지, 무슨 일을 하는지, 무엇을 다루는지, 내 천직이 무엇인지.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치와 종교의 몇몇 문제에 대해, 그리고 몇몇 유명 인사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.

그들의 눈은 꺼져 있었다. 불이 꺼지는 것을 볼 날만 기다리는 사람의 눈. 그런데 나는, 그 빛을, 다시 켜다.

그것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내 방식이다: 그들을 웃게 하는 것. 나는 배우도 아니고 클리닉의 광대도 아니다 — 많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한 남자일 뿐이다. 다만 빵처럼 흔하지는 않은.

그러자 그들은 내게 이야기 하나를 청했다. 그리고 여기서 나는 독자에게 솔직해야 한다: 내가 들려준 것은 점잖은 농담이 아니었고, 다른 어떤 곳에서도 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. 그러나 거기, 그 방에서는, 삶이 그들에게서 빼앗아 간 것을 두고 웃어도 된다는 허락은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었다.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내게 청했다. 그래서 나는 있었던 그대로 전한다.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듬는 것은 그들을 배신하는 일이 될 테니까.

한 남자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— 내가 말했다 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휠체어에 앉은 남자인데, 어느 날 데이트 사이트의 광고에 응했습니다.

그리고 누가 웃지 않는다면, 내가 덧붙였다,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: 오늘이 그 사람의 날이 아니라는 뜻일 뿐이죠.

아주 부유한 여자가 있었는데, 나이가 꽤 많았다 — 여든 살쯤 — 마흔다섯 살 난 조카딸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찾고 있었다. 그러나 삶이 가르쳐 준 모든 것을 겪은 뒤라,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남자에 대해 분명한 생각이 있었다: 절대 손찌검하지 않는 남자, 집에 붙어 있는 남자, 그리고 — 이렇게 말해 두자 — 넉넉한 크기를 지닌 남자.

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. 그녀 앞에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휠체어에 앉은, 그러나 젊고 잘생긴 그 남자가 광고를 보고 지원하러 와 있었다.

그녀는 그를 면접했다.

그녀는 절대 손찌검하지 않는 남자를 원했다: 그런데 그에게는 팔이 없었다. 그에게 유리한 첫 번째 점수.

그녀는 집을 좋아하고 조용한 남자를 원했다: 그런데 그는 다리가 없이 자기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. 그에게 유리한 두 번째 점수.

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물건이 실한 남자를 원한다고 말했다. 그러자 그는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다: “부인... 그럼 제가 뭘로 문을 두드렸다고 생각하세요?”

그 순간 다섯 남자는 웃음을 터뜨렸고, 멈추지 못했다. 그러나 여자는 진지한 얼굴 그대로, 무표정하게 있었다. 그리고 내 모든 주의가 그녀에게로 향했다.

그녀를 위한 두 번째 버전은 없었다.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. 그러나 영감이 번뜩였다: 나는 그녀에게, 원한다면 그 지원자의 전화번호를 드리겠다고 말했다. 그녀의 눈이 반짝였고,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: 네, 네.

나는 그녀에게서 미소 하나를 얻어 냈다. 내 목표에 이르렀다. 그것이 그 순간에서 남은 전부였다 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.

내가 시설을 떠날 때, 모두가 언제 다시 오느냐고, 다른 이야기도 있느냐고 물었다.

II. 에필로그

사람들은 남는 것이 진료 기록, 엑스레이 사진, 집에서 이어 갈 치료, 또는 종잇조각에 급히 휘갈겨 쓴 전화번호라고 믿는다.

그들은 틀렸다.

사람이 시설을 떠날 때, 자신을 치료하는 데 쓰인 것은 거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.

그들은 사람들을 가져간다.

목소리들을 가져간다.

습관들.

복도들.

시간표들.

몇 주 동안, 혹은 몇 달 동안 그들 삶의 시간을 새겨 놓은 얼굴들.

의학은 기록 보관소에 남는다.

기억은 다른 길을 간다.

그리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기억이다.

III. 작가의 페이지

이 작품은 의뢰받아 쓴 것이 아니다.

팔리지도 않았다.

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다.

이 작품은 재화의 가치, 인간의 존엄,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증언하기 위해 쓰였다.

유일하게 청하는 대가는 상징적인 1달러다 — 작품에 대한 값이 아니라, 돌봄과 희망과 책임의 문화를 향한 공동의 헌신을 증언하는 표시로서.